

## 간송문화전 작품 및 전시관 보안·경비 협약

(재)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과 (재)간송미술문화재단(이하 '간송')은 DDP 디자인박물관(배움터 2층)에서 공동으로 <간송문화전>을 개최하고 있다. '(재)서울디자인재단/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재계약'(2017.2.13), '(재)서울디자인재단/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계약'(2013.11.1)과 '간송문화전 보안·경비 추가 보강 협약'(2014.4.30)에 의거하여 작품 및 전시관 보안·경비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1. 작품 및 전시관의 보안·경비를 위하여 기간은 2017년 2월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시개최 전과 전시개최 기간에 따라 인력 및 비용을 달리한다. 전시개최 전은 인력 6명, 비용 31,957,000원(부가세 포함), 전시개최 기간은 인력 17명(팀장1명 포함), 비용 486,96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재단'은 작품보안 및 안전 책임을 맡은 '간송'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 중요 문화재의 보안·경비에 적합한 업체를 '간송'이 선정하도록 한다.
2. <간송문화전> 작품 및 전시관 보안·경비 협약 기간은 2017년 2월 11일부터 공동전시 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보안·경비의 범위와 투입인력, 비용은 합의에 의해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3. 범위와 역할은 전시관의 보안·경비 및 순환·순찰 근무, 출입문 개폐, 특수수장고의 보안·경비 및 작품의 반출입 관리, 24시간 보안관리 및 운영상황실 근무에 책임을 진다.  
※전시개최 전과 전시개최 기간에 따라 범위와 역할은 달리한다.
4. 보안·경비 인력의 운영 및 통제와 관련하여 '재단'과 '간송'은 '(재)서울디자인재단/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계약'의 기본 취지에 근거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5. 보안·경비 인력에 대한 비용은 매월 청구에 의해 '재단'이 '간송'에 지원하기로 하고, '간송'은 비용의 집행, 비용 정산자료의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6. 특수수장고 보안·경비 인력 6명은 2월 11일부터 투입하고, 특수수장고를 포함한 보안·경비 및 전시관 순환·순찰 근무를 위한 인력 17명은 4월 1일부터 투입한다.
7. 협약에 따른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8. 본건 계약의 해석을 위해서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며, 적용되는 범규가 없는 경우 상·관습법에 따르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의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2월 11일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성 우 (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인)